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 Newsletter

새로운 길을 나서는 2020 / 4월 5주차

## ■ 연구원 소식

### ○ 오경택 회원 신간 도서 안내 “조선중기 전주지역 사족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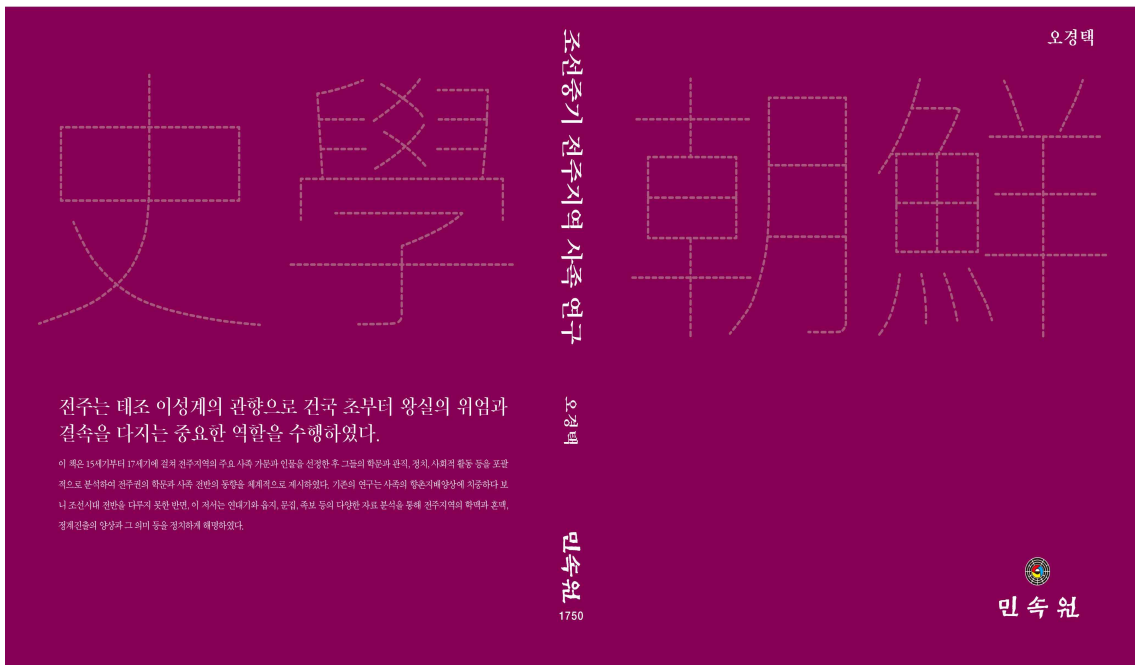
우리 연구원 오경택 회원(문학박사, 전주 성심여고)이 쓴 신간도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사학회연구총서 19

조선시대사학회연구총서 19

조선중기 전주지역 사족 연구  
朝鮮中期 全州地域 士族 研究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관향으로 건국 조부터 왕실의 위엄과  
걸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책은 15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전주지역의 주요 사족 가문과 인물들 선정 후 그들의 학문과 관직, 정치, 사회적 활동 등을 포괄  
적으로 분석하여 전주권의 학문과 사족 전반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사족의 향촌지배당장에 치중하다 보  
나 조선시대 전반을 다루지 못한 반면, 이 책은 연대기와 읍지, 문집, 족보 등의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전주지역의 학맥과 문예,  
경제권력과 양상과 그라미 등을 정리하게 해명하였다.

조선중기 전주지역 사족 연구

오경택

민속원  
1750

오경택

민속원

'조선중기 전주지역 사족 연구(저자 오경택, 출판 민속원)'은 15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전주지역의 주요 사족 가문과 인물을 선정한 후 그들의 학문과 관직, 정치, 사회적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등 전주권의 학문과 사족 전반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사족의 향촌지배양상에 치중하다 보니 조선시대 전반을 다루지 못한 반면 이 저서는 연대기와 읍지, 문집, 족보 등의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전주의 학맥과 혼맥, 정계진출의 양상과 그 의미 등을 정치하게 해명하였다.

또,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전주지역의 주요 인물들의 정계 진출 활동과 그것이 끼친 정치적 파장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관향으로 건국 초부터 왕실의 위엄과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훗날 17세기 전주지역에서는 서인계(노론과 소론) 사족뿐만 아니라 북인과, 남인계 사족들이 정국의 집권세력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정계 진출을 시도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여타 지역과 구별되는 전주지역 사족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저자는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입학의 계기로 역사에 입문했고, 서강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2011년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서울 대일외고에서 첫 교편을 잡은 이후 1998년부터는 전주 성심여고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민대와 전주대 등을 거쳐 현재는 전주교대에서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 새전북신문 서평 -----

## ○ 스리랑카 한 달 살이 이야기 연기 안내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한 달 살이 이야기 나눔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되는대로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날을 다시 계획할 예정이라 그렇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늘 화평한 날만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와 월든 숲(下)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 월든 호수

보스톤에서 기차를 타고 40여분 가니 콩코드역에 도착한다. 작은 읍이라 생각되어, 기차에서 내린 후 읍내 중심부로 걸었다. 조용한 거리를 20여분 걸으니 바로 읍내 중심부가 나온다. 머리에 그려진 약도를 떠올리며, 탐방을 시작하였다. 찾아볼 곳이 많은데, 우선 읍내 중심부에서 가까운 곳부터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맨 먼저 초절주의자이며, 소로우의 스승인 에머슨의 집을 찾아갔다. 에머슨은 소로우보다 14살이 많고 당대에는 소로우가 무명이었다면 에머슨은 미국의 유명 인사였다. 그러나 이번은 소로우에게 초점을 맞춘 터라, 에머슨의 할아버지가 지은 집(이집에서 에머슨이 살았고, 「주홍글씨」 작가 호오돈, 소로우도 생활한 적이 있다.)을 잠시 보고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노스 브리지(North Bridge) 등 읍내를 다 돌아 본 다음 소로우가 생활한 월든 숲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방향이 반대이다. 에머슨, 노스브리지가 북쪽이라면 월든 숲은 남쪽이고 거리도 제법 멀다.



아무튼 읍내에서 외곽으로 가다가 렉싱턴 삼거리에서 우측 월든 거리(Walden Street)로 들어서니 작은 안내소가 보였다. 지난 호에서 말했던 안내소 중년 부인이 빌려준 자전거를 타고 월든 거리의 가을 꽃 경치와 상쾌하게 스치는 가을바람을 즐기며 월든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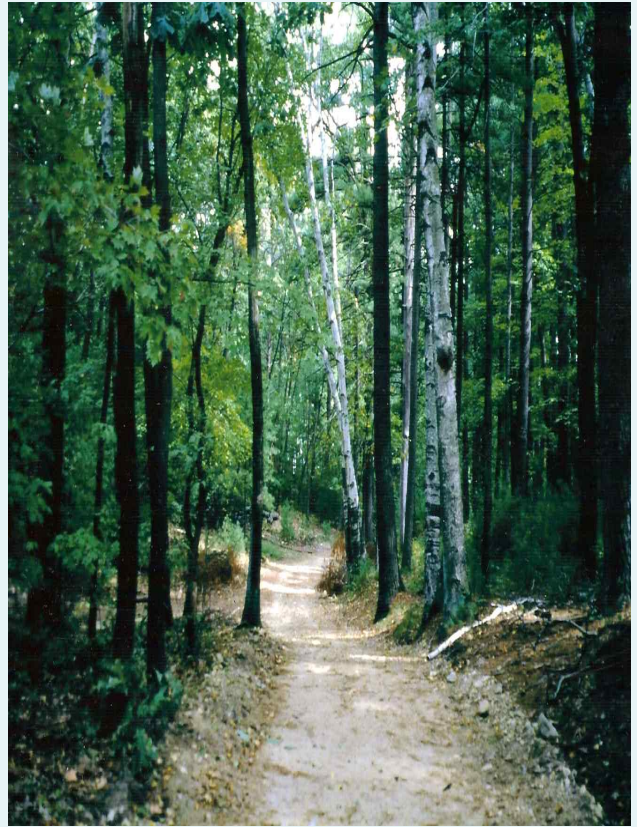
자전거로 30여분 월든 스트리트를 달리니 월든 호수로 들어섰다. 좌로는 호수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숲이 있고 그 사이로 한적한 오솔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막연하지만 관심이 있었고 해서,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곳이라 단순히 어느 호수, 어느 숲이 아니었다. 오솔길로 들어서는 순간 "나무들 사이로 몰려오는 바람이 우주의 끝없는 진보를 이야기한다. 이 자연의 소리들은 진지하면서도 듣는 이를 기운차게 만든다. 숲속의 바람소리에 심장이 격동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산만하고 천박했던 내가 숲의 바람소리를 듣고 갑자기 영혼이 되살아난 것만 같다." 소로우의 말이 생각났다.



월든이 시작되는 오솔길



소로우의 작은 오두막과 동상



소로우의 산책길

호수는 미풍으로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고 바다처럼 밀물 쓸물은 아니지만, 숲 가장자리 좁은 모래에서 작은 출렁임을 만들고 있었다. 호숫가로 난 오솔길은 호수와 같이 가기도하고 숲속으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한다. 이 오솔길을 소로우가 수 없이 오가며 생각을 가다듬었다고 생각하니, 곳곳이 소로우의 체취가 전해지는 것만 같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먼 여정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가 가셨다. 월든의 호수와 숲은 세상의 걱정을 덜기에 충분한 평화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숲의 바람소리를 들으니 영혼이 되살아 난 것 같다는 소로우의 생각에 공감이 되었다.

미국의 사상가이며 문인이기도 한 소로우는 1817년 7월 12일 매사추세츠주(州)의 콩코드에서 태어났다. 소로우는 1833년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 졸업 후 토지 측량, 아버지가 운영하던 연필 제조 사업을 돕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에머슨을 만났고 정신과 자연을 중시하는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소로우는 1845년 여름부터 1847년 가을까지 월든 숲속에서 홀로 생활하였다. 당시 하버드 출신들은 정계나 재계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호화로운 삶을 추구하였지만, 소로우는 삼 한 자루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2년 2개월 동안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자연에 심취하였다. 소로우는 그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1854년에 발행한 『월든 Walden, or Life in the Woods』은 오늘날 그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그는 2년 동안 숲속 생활 중에 쓴 일기가 19권이나 된다. 이 일기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번역되어 읽혀지고 있다. 소로우 일생에 특기할 만한 일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1846년에 멕시코와의 전쟁이 발발하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돈을 낼 수 없다'며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여 감옥에 수감된 사건이다. 물론 친지의 도움으로 하루 만에 풀려나기는 하였지만, 그 때의 경험으로 연설한 내용이 책으로 나오게 된다. 그 책이 바로 『시민의 불복종』이다. 이 책은 케네디 대통령, 마르틴 루터 킹 목사, 톨스토이 등 여러 유명 인사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간디의 무저항주의는 이 소로우의 책에서 나왔다고 한다.

아무튼 인적이 드물어 산책하기에 좋은 월든 숲에서 걸으며, 생각하며, 사진 촬영하며 반나절을 그렇게 보냈다. 월든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졌던 나의 꿈을 이루게 해준 장소이다. 꿈이 이뤄진 감동의 숲에는 소로우의 소리 없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소로우의 작은 오두막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었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 백장선사를 기리는 <수청산 백장암> 일곱 번째 이야기 “백장선원과 청화스님”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석탑의 오른쪽 뒤로 작은 대밭이 나오는데, 눈보라를 이겨 낸 대나무가 시퍼렇다. 그 아래 암자로 오르는 길이 구부정하게 누웠다. 돌아보니 지리산 천왕봉이 맞은편에 우뚝하다. 백장암은 정확하게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본래 백장사였다고 한다. 백장사는 백장선사를 기리는 한편, 투철했던 스님의 수행 자세를 본받고자 지은 이름이 확실하다. 그러기에 지금도 '백장선원'이 한쪽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삼층석탑과 석등의 조성연대로 미루어 백장사는 실상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유추된다.

백장사는 1679년(숙종5)에 소실되었는데, 대중들이 힘을 모아 몇칸의 작은 건물을 세운 뒤 백장암이라고 불렀다. 1868년(고종5) 10월에 다시 화재를 당했다. 이듬해 운월대사가 삼층석탑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의 위치로 암자를 옮겼다. 1901년 또 화재를 겪었는데, 다음해에 남호대사가 완봉, 환월, 월허, 영담스님 등과 함께 다시 암자를 일으켰다.

백장암은 맞배지붕으로 이루어진 광명전과 선원을 전면에 배치한 모습이다. 광명전은 1910년에 건립되었고, 선원은 1972년에 증축하였다. 광명전 위쪽의 건물은 문수전이다. 백장암은 예로부터 많은 선승들이 머물던 곳이다. 그들은 백장선사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한 철 바람으로 이곳을 스쳐갔다. 그 바람은 우리나라 선종사를 크고 작게 아로새겼을 터인데, 선원은 옛 모습으로 거듭나 아직도 제자리를 지킨다.

선원 안쪽으로 언덕 아래에 조성한 무문관無門關이 보인다. 폐기물을 재활용해 앞쪽을 단장했는데, 자물쇠를 채운 문에 공양이 드나드는 창 하나만 열어 놓았다. 이곳은 예로부터 치열하게 용맹정진하던 스님들이 가부좌를 틀었을 작고 밀폐된 공간이다.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스스로를 가둔, 그래서 서슬 푸른 곳이다. 토굴 앞쪽으로 수조 하나가 덩그러니 놓였다.





**무문관 |**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내딛고자 서슬 푸른 스님들이 가부좌를 트는 공간이다.

백장암과 인연 깊던 스님들의 이름은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름을 남길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기에 스님들은 미련을 두지 않고 훌훌 떠나가 버렸으니, 그들은 무명無名의 길을 흔쾌히 선택한 것이다. 다만 근년에 이곳에 들었던 청화淸華스님의 행적만이 그나마 자세하게 전해 온다.

청화스님과의 인연은 1960년대 후반 지리산 벽송사 삼불주 두지터 토굴에서 거처할 때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스님은 인연에 따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80년대 초반 백장암에서 처음으로 대중을 제접提接하였으며, 염불선念佛禪을 일깨워 주었다. 게다가 '안 자고, 안 눕고, 하루 한 끼만 먹는' 가행정진加行精進의 청규淸規를 세상에 내보였다. 스님은 수행의 어려움을 열 가지로 설하였으니, 이들의 극복을 위해 치력했던 흔적이다. 그 열 가지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도난體道難이니, 무릇 진리를 얻기가 어렵다.  
 둘째 수규난守規難이니, 규율을 지키기가 어렵다.  
 셋째 우사난遇師難이니,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다.  
 넷째 출진난出塵難이니, 번뇌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다섯째 실심난實心難이니, 마음을 실답게 하기가 어렵다.  
 여섯째 오도난悟道難이니,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다.  
 일곱째 수관난守關難이니, 관문을 지키기가 어렵다.  
 여덟째 신심난信心難이니, 마음을 믿기가 어렵다.  
 아홉째 경심난敬心難이니, 마음을 공경하기가 어렵다.  
 끝으로 해경난解經難이니, 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백장암은 고승과 대덕들이 천왕봉을 바라보며 바람과 달의 노래를 듣는 암자다. 아니, 삼층석탑에서 천인들이 연주하는 천상의 가락을 듣는 곳이다. 깨우침을 위해 정진을 하다가 감사의 마음에서 저절로 눈물을 쏟는 행복한 자리다. 그리하여 우렁찬 염불 소리가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면서 울려 퍼져야 할 약속의 터전이다.

귀갓길에 운봉읍사무소 옆의 서림공원에 들렀다. 우리나라 돌장승 중에 가장 정겨운 모습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한 쌍이 이곳에 있는 탓이다. 도중에 일제가 자신들의 수치스런 옛 역사를 지우려고 만행을 저지른 황산대첩비 구경도 빠뜨리지 않았다.

흐린 하늘 아래로 제법 길게 느껴지는 하루가 흘렀다. 바람은 종일토록 불었다.

다음 주는 남해를 품은 <금오산 향일암과 백도> 첫 번째 이야기 “갯김치로 유명한 돌산읍”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